

形象 類型에 따른 질병 前兆의 意義에 대한 기초 연구 -內經 五型人을 중심으로-

김경철* · 이용태 · 지규용 · 김종원 · 이인선 · 김종환 · 신우진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의학연구소

Basic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Disease Pre-Sign According to the Body form Type

Gyeong Cheol Kim*, Yong Tae Lee, Gyu Yong Ji, Jong Won Kim, In Sun Lee, Jong Hwan Kim, Woo Jin Shi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In Korean society, the chronic life style diseases are increasing. It is caused by the approach of the aged society and the highly increasing income. Accordingly the preventive side of the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the oriental medicine, the general disease pre-estimate and the management program are necessary. On this point, the sign forecast is very significant in connection with the disease pre-estimate in the preventive disease management side. The sign forecast according to the human shape type diagnosis is mainly the sign of the super-early stage. The difference of the shape type has the difference of the special affinity about the disease. Accordingly we can find the sign forecast from the latent disease in the early stage. In NAE-GYEONG(內經), the theory of "five body form's type" can be pre-estimated the latent tendency and the clue of the disease and the growing tendency of disease in relation to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 In the disease pre-estimate side, the graspe and management of the sign forecast from the latent disease will be the part of the new development.

Key words : glutamate, apoptosis, glial cell, Soping-tang(SPT)

서 론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소득증대로 인한 만성 생활습관 병이 증가하면서, 건강 증진과 관리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이 중시 되고 있다. 韓醫界에서도 未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¹⁾ 진단적인 측면에서 질병 예측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 예후 예측을 말하는 前兆는 질병의 조기전조, 轉變하는 예조 및 상서롭지 못한 흉조를 포함하며, 숨어 있는 潛伏證을 중심으로 체내에서 보내는 모든 신호를 대상으로 한다. 潛伏證의 전조는 질병이 드러나기 전의 각종 잠재된 반응 유형을 말하며 辨證論治는 질병 발생후 질병의 본질을 인식하고 치료원칙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辨證이 비록 질병의 病因 분석과 질병의 전 과정을 종합한 것을 포함하지만, 그 중점은 질병

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는 懸證에 있다는 점에서 潛伏證 預兆와 는 차이가 있다. 질병 치료와 관계되는 辨證論治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현증 단계를 중시하지만, 실제 질병은 현증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며, 질병의 예측은 반드시 질병이 현증되기 前인 잠복증 단계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잠복증은 질병의 조기 단계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 중 비교적 드러나는 것은 잠복증과 현증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곧 前兆證이라고 할 수 있다²⁾.

우리가 고령사회의 만성적인 생활습관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질병을 잠복증 단계에서 조기치료하여 질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나름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잠복증 전조의 또 다른 의의는 잠복한 질병이 처음 발생하는 단계, 곧 질병발생의 근원적인 원인과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체생리병리를 바탕으로 형상진단론으로 질병의 잠복증을 진단하여 질병의 超早期 단계에서 치료를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1-850-8649

· 접수 : 2008/10/30 · 수정 : 2008/03/17 · 채택 : 2009/03/24

1) 전국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교실에서 임상관리의 한 분야로서 미 병을 다루고 있다. 생기능의학, 군자출판사, 355p
2) 중의질병예측학, 39p

할 수 있다면 예방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더불어 질병이 악화될 때에도 반드시 前兆가 보이는데 제 때에 치료하면 병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호전될 수 있다. 이러한 조기 전조의 규율을 파악하는 것은 질병예측의 핵심이다. 그리고 질병의 예측과 치료는 辨證論治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고령사회의 만성 생활습관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던 중 韓醫學의 형상진단을 이용한 질병예측이 질병 전조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살펴본 바 다스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질병 예측에서 前兆 의의와 形象 診斷

前兆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의 징후를 가리킨다. 질병이 발생·발전하고 변화하기 전의 조기증상을 포함한다. 이는 질병의 조기신호로서 질병예측의 중요한 前提가 된다. 질병 예측의 핵심은 질병의 조기신호인 前兆證이다. 전조증을 탐구하는 목적은 숨어 있는 잠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이 발전하는 기미를 일찍 파악하며, 질병의 흉조를 일찍 예견하여 질병의 발생·발전·변화를 제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측학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질병을 예측하는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병리신호를 조기에 찾아 조기 진단, 치료하는 것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학적 효과와 이익이 있으므로, 특히 고령화사회의 만성 생활습관병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건강장수를 보호하고 생산력을 촉진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전조증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발전과 위급한 단계,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도 두루 나타난다. 그래서 전조증의 법칙을 잘 알게 되면 진단과 치료 예방의 수준도 반드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질병의 早期信號에 주의하는 것은 잠복된 병을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내재하는 증상은 밖으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으므로, 아무리 잠복해 있는 병증이라 하더라도 그 흔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은폐되어 있는 조짐을 통하여 잠복되어 있는 병을 찾아낼 수 있다. 잠복된 질병의 감춰진 조짐을 파악하는 것은 한의 이론의 정체론적인 분석을 응용함으로써,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면 증상이 없는 중에서도 증상을 찾아낼 수 있다. 內經에서 이미 縮影理論을 논설하여³⁾, 顏面과 內臟의 相關學說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五臟의 氣는 모두 얼굴에서 그 증후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面部는 全身 內臟의 縮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面部 이외에 인체의 귀·눈·코·손·발·등·배 등등의 부분에서도 全身의 變化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홀로그래픽(holographic) 전조란 인체의 각 부분이 전신을 반영하는 축소판이라는 것이다⁴⁾. 인체의

각 부분은 모두가 아주 작은 스크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五臟의 신호를 살펴 볼 수 있다.

인체에는 생리적 홀로그래피(holography) 뿐만 아니라 병리적 홀로그래피도 존재한다. 즉 어떤 한 부분에 병이 있을 때 全體에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정체에 병이 있을 때 그 신호가 각 부분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홀로그래픽 전조로서 질병을 예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홀로그래피 이론과 前兆의 밀접한 관계는 홀로그래피 이론에 의한 진찰로부터 역추리 할 수 있다. 홀로그래피 이론에 의한 診斷을 통해 인체에는 병리적 홀로그래피의 전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예를 들면 귀·얼굴·눈·손·발 등등은 모두가 병리적 홀로그래피의 전조를 가지고 있다. 병리적 홀로그래피의 전조는 잠복증이 숨어 있는 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人體 全身形態에 의한 類型 診斷이다. 全身形態 診斷에 따른 體質 豫報는 超早期의 전조에 속한다.

서로 다른 類型의 體質은 질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易罹性이 있다. 즉 서로 다른 유형의 체질과 질병은 특별한 친화성이 있다. 그래서 體質的인 潛伏證으로부터 조기에 전조를 발견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韓醫는 옛날부터 타고난 體質을 중시하였는데, 內經에서는 타고난 體質이 生理·病理·診斷·治療 및 攝生 등의 방면에 관련되는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였다.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현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정도로 인체의 器質·體形·稟性·皮膚色·態度 등을 五行 理論에 따라 분류하여 놓았으며, 그리고 靈樞에서는 성격에 따라 陰陽體質 學說로 사람의 天性을 分類하여 體質醫學理論의 형성과 발전의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韓醫學의 藏象理論과 陰陽五行을 기초로 하고 心質과 體質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體質 類型에 따른 病因·病理의 내용을 제공하여 診斷과 治療의 근거로 삼고 있다⁵⁾.

여기서 질병의 발생은 유기체의 생리평형 상태가 파괴되어 문란과 조절 상실에 이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평형조절 상실로 인한 병리 변화는 어떤 요소의 격발과 유도 및 변화의 상태에서 생기며, 이 요소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病因이라 말하며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구분한다. 發病學的으로 內因은 주로 유기체 자신의 요소를 가리키는데, 유기체 자신에게 속하는 요소는 질병 발생과 발전에 대해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질병의 성질과 전이와 치유에도 영향을 주는 등으로 개체체질 상태의 일부분이 된다. 이런 이유로 개체 체질론의 입장에서는 內因에 해당하는 正氣의 상태를 중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正氣 爲 主의 發病論에서 正氣의 質的인 構成에 대한 관찰은⁶⁾ 個體 體質의 認識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正氣와 관련되는 內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生來的인 先天的 體質이며 체질은 각 개체마다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의 糾明을 위하여 病證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逆推하는 것과 몇가지의 체질의 類型을 분류하여 연구하는 形象論的인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形象 診斷은 각종 개체체질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3) 중의질병예측학, 63p

4) 중의질병예측학 65p

5) 전신형태진단, 41p

6)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 p83

7) 윤길영, 사상체질의학론, p. 18

辨證에 있어서 病因 病機를 분석하고 病變의 성질과 발전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內經 論痛篇에서⁸⁾ 筋骨의 強弱, 肌肉의 堅脆, 皮膚의 厚薄, 主리의 疏密, 腸胃의 厚薄 堅脆의 不同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形臧이 원래 한 타입이 아니므로 人間 形體의 厚薄과 臧의 虛實이 동일한 편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病因論의 차원에서, 개체 체질적인 요소(內因)가 發病學의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論勇篇에서 함께 烈風暴雨를 입은 사람들이 혹은 발병하고 혹은 발병하지 않는 이유를 皮肉의 薄弱으로 四時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며, 皮肉의 厚堅으로 四時의 虛風에 傷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靈樞 百病始生에서도 “虛邪之風이 身形과 아울러 兩虛를 相得하여 形體를 侵入한다”고 하여 질병 발생에서 외부의 각종 발병요소는 생명체 내부요소 즉 체질상태의 작용과 아울러서 경과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만든다고 보았다. 단순한 風雨寒濕의 邪氣만으로는 發病하기에 不足하고, 虛邪之風은 반드시 人身의 正氣의 虛함을 틈타서 疾病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素問 熱論에서⁹⁾ 말하는 “邪氣所湊 其氣必虛”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개체의 虛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론이 바로 形象論적인 方法이라는 점이다.

또한 전신 형상으로 진단 가능한 개체체질의 특수성은 어떤 발병 인자와 질병의 발병율을 유도한다. 특히 個體體質의 強壯 與否가 發病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개체체질의 차이는 病邪에 대한 인체의 反應 狀態와 疾病의 轉化 規律를 다르게 만든다. 醫宗金鑑에서 인체에 감촉된 邪氣가 비록 同一하더라도 사람의 形臧의 差異로 인하여 혹은 寒化하고, 혹은 熱化하고, 혹은 虛化하고, 혹은 實化하여 많은 양상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으며¹⁰⁾, 淸나라 末葉 章楠은 六氣의 邪氣의 陰陽 차이성과 함께, 인체 침입 후 침입한 인체의 陰陽強弱에 따른 변화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病之陰陽 因人而變”, “邪氣因人而化”라는 매우 중요한 個體病理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¹¹⁾. 즉 濕邪에 감염되었을 경우 陽熱體質은 濕이 陽을 좇아 化熱하여 濕熱이 되고, 陰寒體質은 陰을 좇아 化寒하여 寒濕이 된다. 이런 轉變의 差異性의 원인은 각자의 타고난 稟性의 陰陽, 臟腑의 強弱 등으로 인하여 發病因子가 생명체를 통과하면서 化寒, 化熱, 化濕, 化燥 등으로 不同한 轉化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發病과 發病過程은 體質의 陰陽 偏重에 의하여 轉化되는 從化現象의 상대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全身 形象 診斷으로 파악이 가능한 個體體質論은 發病 罹患性과 傾向性과도 관련이 있다¹²⁾. 인체 發病 與否를 결정하는 것은 유기체 正氣의 強弱의 치우침과 융성함, 질병을 일으키는 邪氣가 있고 없음과 융성함과 쇠퇴함이며, 한 개인의 正氣 強弱은 유기체의 체질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기는 인체체질이 가진 기능상태의 작용활동 방면에서의 일종의 반영이며, 인체 正氣 盛衰는 대부분 체질의 작용활동에서 반영되는 것

이다. 그래서 체질과 병인의 관계는 인체 정기의 發病 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개체 체질의 특수성은 유기체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지 아닌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질병에 존재하는 傾向性, 罹患性의 差異에서도 잘 나타난다. 개체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까닭의 본질은 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체질상태로 인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한 저항력이 서로 다르고, 감당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병사에 감염되더라도 병이 되는 경우와 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淸代 名醫 徐靈胎가 醫學源流論의 病同人異論에서¹³⁾ 治病必求其本 所謂本者 人身之氣質이라고 주장하면서 病同人異의 근거를 氣體有強弱, 質性有陰陽 등으로 설명하면서 질병의 발생과 변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의 근본이 사람의 形象論의 個體 體質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국 疾病의 病因, 發病의 관련성 여부, 발병 罹患性과 傾向性, 轉變 規律, 辨證 등이 모두 개체 체질과 관련이 깊으며, 따라서 形象을 통하여 개체 체질의 특성 파악이 가능한 類型 形象論에 따른 疾病 前兆를 미리 알고서 예방 관리하는 것은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治未病의 예방의학 정신을 되살리고자하는 韓醫界에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2. 內經 五型人 診斷과 前兆

內經에서 全身形態 診斷에 따른 前兆는 주로 두가지 방면으로 활용되는데, 질병의 잠재적 경향을 예측하며, 질병의 발전과 전환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다¹⁴⁾.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저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¹⁵⁾, 內經에서 안면 형상을 주로 관찰 설명하는 五型人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木型人의 疾病豫報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 형의 사람은 오행으로는 목에 속하므로, 발생기능을 형상하여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身, 小手足, 好有才, 勞心, 少力, 多憂, 勞於事라는 형상적인 특징을 나타낸다¹⁶⁾. 또한 木性은 조리 정연하며, 시비선악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木의 天性은 風質인데, 風은 陽에 속하고 그 성질은 활발하다. 때문에 木型人 역시 外向性을 지닌다. 따라서 성격이 급하고, 일을 깨끗이 처리하며, 활발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하여 外交를 잘하고 집안 일은 잘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형의 사람은 과민하여 넘겨 집기를 잘하고, 시기 하며 기복이 심하다. 形體는 얼굴이 푸르고, 脈은 弦하며, 키가 크고 사지가 가늘거나 혹은 신체가 작고 깎짝하다. 그 특징은 陽이 많고 陰이 적으며, 陽氣가 偏勝한 편이다. 風性은 동요하고,

13) 원광대학교 한의대 17기 졸업위 공역, 국역 서영태의서, pp. 42-43

14) 중의질병예측학, 72p

15) 안면형태 유형분류에 근거한 치마병 예방의확정신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권 1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권 5호),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설계의 형태체질론 연구(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권 1호), 전신형태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장남의 형태체질론 연구(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2호), 靈樞 陰陽二十五人篇 知人法에 나타난 認識과 思考方式의 形成要因에 대한 體質構成論의인 考察(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권 5호), 신체 형태 관찰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권 5호)

16) 전신형태진단, 105p

8)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영추, pp. 232-235

9) 홍원식, 정교황제내경 소문, pp. 116-118

10) 王琦 主編, 臨床醫學從書, p. 438

11) 匡調元 著, 人體體質學, pp. 165-168

12) 김경철, 개체체질과 병인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風氣는 肝으로 통한다. 때문에 이 형의 사람에게는 肝陰虛風動症 및 肝系統의 疾患이 많이 나타난다. 결국 木型人은 肝陰虛하여 陰虛風動 및 肝系統의 病이 잠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 風氣는 肝에 통하며, 肝과 신경계통의 관계는 비교적 밀접하기 때문에 木型人은 肝膽 및 신경정신계통의 질환에 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木型人의 질병추세를 예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木은 소통시키고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陰이 쉽게 소모된다. 그러므로 木型人은 陰虛적 단계로 쉽게 바뀐다.

체형은 여위고 키가 큰데, 舌質이 붉고 苔가 적으며, 입과 목안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럽고 잠이 적으며, 성질이 조급하고 성을 잘 내며, 몸과 손발바닥에 열이 나기 쉽고, 소변이 붉고 적으며 대변이 단단하고, 脈弦細 등의 陰虛 증후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 머리가 어지럽고 성을 잘 내면 木型人이 陰虛 병리적 단계로 변했음을 알려주는 증상이 된다. 또한 입이 마르고, 혀가 붉은 것도 陰虛한 단계임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무릇 木型人이 머리가 어지럽고 성을 잘 내며, 舌質이 붉고 입이 마른 증세를 나타내면 이미 陰虛 병리적 단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반드시 風이 동하여 건조하게 되고 火熱이 內生할 추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木型人은 風氣가 비교적 많은데 風은 濕을 이기며, 흩어지고 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진액을 소모하여 손상시킨다. 그래서 木型人이 燥熱한 邪氣에 감촉되거나 오랜 병으로 津液을 傷하게 되면 모두 津液이 손상되어 건조하게 되고 燥熱病理적 단계로 변화될 수 있다. 또 어지럽고 눈에서 불꽃이 일어나며 두 눈이 찢어지고,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며, 옆구리가 아프고 성을 잘 내며, 오줌이 적고 대변이 굳어지며, 설질이 붉은 색으로 건조하고, 脈弦細 등의 조열한 증후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木型人이 津液을 손상하게 하여 건조해졌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木型人은 보통 陽이 盛하고 陰이 虛하며 木은 風氣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六淫이 체내에 들어가면 쉽게 風化된다. 이외에도 木型人이 만약 장기적으로 肝鬱하게 되면 病理的인 瘀血質로 쉽게 변하여 얼굴색이 어둡고 흐릿하며, 눈 주위에 검푸른 색이 나며, 잇어먹기를 잘하고, 입이 마르지만 머금기만 할 뿐 삼키려 들지 않으며, 피부에 붉은 줄과 점이 있거나 정맥이 밖으로 불거지고, 설질은 푸르며 자색이거나 어두운 색이 나고, 변두리에 瘀點·瘀斑이 있고, 脈은 沈澁한 등의 瘀血 증후가 나타난다. 이런 형은 눈 주위가 푸르고 어두운 것이 그 증상인데, 얼굴이 어둡고 자색이 나는 것은 瘀血證의 표지이다. 이런 형이 나타나면 마땅히 痰과 瘀가 서로 뭉치고, 癥瘕와 積聚, 失血과 出血 등의 병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火型人의 잠재적 질병 예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火型人은 推進 기능을 取象하여 기운이 위로 쏠리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역삼각형의 형상으로서, 赤色, 廣脰, 脫面, 小頭, 好肩背腫脹, 小手足, 行安地, 疾心, 行搖, 肩背肉滿의 형상적인 특성을 보인다¹⁸⁾. 음양의 속성으로 보면 陽氣가 偏旺하여 陽은 많으나 陰은 부족하다. 火型人은 火氣가 偏勝한데, 火의 성질은 위로 치솟고 光明하고 溫熱하다. 그래서 이런 형의 사람은 성격이 외향

적이며 열정적이고 격동적이다. 또한 진취적이고, 분발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생각이 민첩하고 반응이 빠르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고 허풍을 잘 떨며, 싸우기를 좋아하고 야심이 많다. 체질 방면에서는 脈이 빠르고 얼굴빛이 붉고, 몸이 가볍고 힘이 있으며,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추위를 이기는 힘이 강하다. 陰陽論的으로는 太陽으로서 陽氣가 충만하고, 陽氣가 편성해지기 때문에 氣血이 왕성하여 氣는 오르고 血은 약동한다. 그래서 이런 형의 사람은 血分의 병에 걸리기 쉽다. 陽이 성하면 陰病이 발생하며, 火가 왕성하면 陰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陰虛陽亢한 질병이 자주 발생한다. 陽이 성하면 熱이 나므로 또한 熱病에 잘 걸린다. 정신 방면에서는 躁狂症에 잘 걸린다. 결국 火型人은 陰虛陽亢, 熱病, 血證, 暴病이 잠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火氣는 心臟에 통하고 心臟은 血脈을 주관하기 때문에 火型人은 心血管계통의 질병에 잘 걸린다. 그러므로 관상동맥질환·동맥경화·중풍·뇌출혈 등의 질병은 이런 형의 사람들에게 종종 잠재하는 경향이 있다.

화형인의 질병추세를 예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火型 質인 사람은 陽이 많고 陰이 적기 때문에 陰이 쉽게 손상된다.

그래서 火型人의 사람은 근심걱정이 많고 또 성생황이 너무 과도하여 營陰이 모르는 사이에 소모되거나 津液이 손실되어 쉽게 陰虛적 단계로 바뀐다. 그래서 여위고 얼굴이 붉으며, 舌質이 붉고 舌苔가 약간 있으며, 脈이 빠르고 대변이 딱딱하고 소변이 적어지고 붉으며, 열을 싫어하고 손발바닥이 뜨거우며, 가슴이 답답하고 성을 잘 내며,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는 등의 陰虛證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바닥이 뜨거운 것은 화형질이 陰虛 병리적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이다.

그 뿐 아니라, 더러는 입이 마르고, 혀가 붉은 것은 陰虛質이 되려는 징조이다. 때문에 화형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더위를 두려워하고, 손 발바닥이 뜨겁고, 혀가 붉은 증세를 보이면 이미 陰虛 병리적 단계로 변화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陰虛陽亢의 증상이나 열로 전환되어 음을 손상하거나, 망동하는 화가 풍을 생성하거나, 혈이 사열을 받아 핏줄 밖으로 나가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정신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하며, 사지에 경련이 있고, 목이 뻣뻣해지거나 吐血·衄血·尿血 등 각종 질병을 몰고 올 수 있다. 화형질인 사람은 또한 쉽게 燥熱적 단계로 변화하여 혀와 인후가 건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물이 많이 먹이지만 소변은 적고 붉은 색이며 변비가 있고, 피부가 갈라지며, 혀가 붉고 마르고, 舌苔가 적거나 舌苔가 노랗게 되는 등 조열증후가 나타난다. 또한 혀와 인후가 마르고 마음이 갑갑해지고, 구갈이 나타나는 것이 곧 그 신호가 된다.

그 다음으로 土型人의 질병예보 의의는 다음과 같다. 土型人은 統合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둥근 원의 형상으로서 黃色, 圓面, 大頭, 美肩背, 大腹, 美股脛, 小手足, 多肉, 上下相稱, 行安地, 舉足浮, 安心하는 특성이 있다²⁰⁾. 그래서 陰氣가 偏勝하기 때문에 陽氣를 상하게 하여 陰病이 잘 발생한다. 土氣가 비교적

17) 중의질병예측학, 73p
18) 전신형태진단, 106

19) 중의질병예측학, 74p
20) 전신형태진단, 107p

많기 때문에 성격은 대부분 敦厚하며,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도 내향적이다. 또한 점잖고 말이 적으며, 근면하고 착실하며, 태도가 부드럽고 속이 넓다. 그러나 반응이 조금 늦은 편이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지 못하다. 체형은 머리가 크며 얼굴은 누렇고, 키는 작고 실하다. 土型人은 脾土型에 속하고 土氣는 脾에 응하기 때문에 비계통의 질환에 잘 걸린다. 土性은 濕하고, 습은 陰邪가 되어 양기를 쉽게 손상하게 되므로 陽虛로 인해 運化가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濕性은 끈적끈적하고 가라앉기 때문에 토형인은 대부분 水腫·설사·濕溫·濕痺 그리고 임중과 탁병 및 대하에 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濕의 성질은 아주 濁하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형의 사람은 氣血의 움직임이 비교적 완만하고, 습이 쌓여 痰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痰飲·積聚 등의 병에 잘 걸리며 내장 하수증의 발생률도 높다. 土型人은 陰氣가 勝하고 陽氣를 쉽게 손상시키며, 나아가서는 濕病·水氣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濕氣는 脾에 통하고 脾는 運化를 주관하기 때문에 토형인은 脾胃 소화계통의 질병에 잘 걸린다.

토형인의 질병추세를 예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토형인은 陰이 많고 陽이 적는데, 陽氣는 쉽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토형인이 만약 병이 오래되어 영양 조절이 잘못되거나, 급성병의 상해가 脾胃의 內傷에까지 이르면 氣虛적 단계로 쉽게 변화한다.

이런 경우 얼굴이 누렇고 광택이 없으며, 氣가 부족하고 脈이 없으며, 입맛이 없고 많이 먹지 못하며, 舌質이 옅고 舌苔가 희고 미끈미끈하며, 大便이 무르고 小便이 많으며, 脈이 虛緩하고 심지어 부종이 오고 뚱뚱해지는 등의 氣虛證候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 입맛이 없고 많이 먹지 못하는 것은 氣虛 병리적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그리고 氣가 부족하고 脈이 없는 것은 氣虛質의 표지이다. 무릇 토형인이 氣가 부족하고 脈이 없으며, 식사량이 적고 헛바다에 담백한 색깔이면 氣虛 병리적 단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中氣가 虛하여 疲勞하며 虛하여 損傷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밖에 土型人은 보통 陽이 부족하고 陰이 남으며, 또한 土는 濕氣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 六淫이 몸에 들어오면 쉽게 濕化된다. 이외에 脾는 소화를 위주로 하는데, 脾가 虛하여 소화가 잘 안되면 水濕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土型人이 만약 음식을 제때 먹지 않아 脾陽을 손상하거나, 기름이 많고 단 음식을 마음대로 먹거나하면 모두 脾가 運化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痰濕이 생겨서 痰濕적 단계로 변화된다. 이때 몸이 뚱뚱해지고, 얼굴이 누렇고 어두워지며, 눈두덩이 붓고 푸른색이 나며, 가래가 많고, 입안이 찢찢하며, 대변이 무르고, 헛바다에 옅은 흰색이 보이며 찢찢하거나 흑회색이 나고, 脈은 濡滑한 등의 痰濕證候가 나타난다. 이 형은 가래가 많고 입이 찢찢한 증상이 痰濕의 발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얼굴이 붓고 몸이 뚱뚱해지고, 입이 미끈미끈하고, 몸이 무거우며, 舌苔白膩한 것은 토형질이 痰濕 병리적 단계로 변화된 표지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水腫·痰飲 및 陽이 손상되는 轉化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金型人의 질병예보 의의는 다음과 같다. 金型人은 抑制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각진 정사각형 또는 마름

모의 형상으로서, 方面, 白色,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 如骨發踵外, 骨輕하는 형상적인 특성을 가진다²²⁾. 金型人은 천성적으로 金氣가 비교적 많고 金은 본래 강하여 불기운을 받아 변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金형인은 굳세고 自重하며,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거처가 안정되며 정력이 넘쳐서, 안팎의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해낼 수 있고, 또한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비교적 강하다.

그러나 또한 虛僞, 虛榮心이 있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면이 있다. 체형은 이마가 넓고 얼굴이 희고 네모나며, 키는 중간 정도이고, 뼈대가 굵다. 金형인은 燥金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다. 燥氣는 肺에 응하는데, 燥性은 건조하고 乾澁하여 肺의 진액을 손상하게 되고 燥氣가 승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金형인은 폐계통의 질환에 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氣管炎·기관지염·폐암·기침·변비·소갈 등의 질병들이다. 金型人은 천성적으로 燥氣인데, 폐에 응한다. 그래서 金형인은 폐계통의 병과 燥病을 예보하는 데 가치가 있다.

金형인의 질병추세를 예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³⁾. 金형인은 燥氣를 품고 태어나는데, 燥性은 건조하고 껌껌하여, 진액을 쉽게 손상한다. 『素問·陰陽應大論』에서는 “燥가 勝하면 건조하다”고 했다. 燥氣는 肺에 통하고 肺는 嬌臟으로서 濕潤한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만약 濕燥한 邪가 肺의 津液을 손상시키거나 오랜 병으로 肺陰이 소모되거나 肝火가 肺臟을 태워버려 모든 肺陰이 손상되어 점차 燥熱 병리적 단계로 변화되면, 가래가 적고 마른기침이 나며, 목이 마르고 가래가 찢찢 찢찢하며, 가슴이 편안하지 않고, 설질이 붉고 설태가 얇고 건조하며, 脈滑이 되는 등 肺熱燥證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마른기침이 나고 가래가 적은 것은 金형인이 燥熱 병리적 단계로 변한 것을 알려주는 증상이다. 또한 목이 마르고 가래가 끈적끈적한 것도 燥熱적인 단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그래서 金형인이 마른기침을 하고, 끈적끈적한 가래가 나오며, 설질이 붉고 舌苔가 누르며 건조할 때는 燥熱 병리적 단계로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이므로 火로 변하여 血이 망동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金型質의 사람은 燥氣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燥性은 津液을 손상하고 陰을 소모한다. 그래서 陰은 부족하고 陽은 지나치며 虛火가 속에서 왕성하게 되는데 이른다. 또한 金형인은 이미 偏燥한데다가, 만약 또 오랜 병으로 陰을 상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고, 피를 토하거나, 정액이 질로 나와, 陰이 부족하게 되거나 진액이 적어지게 되거나, 熱邪에 감촉되면 모두 虛火적 단계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이 마르고 입술이 붉고, 火가 올라가 관골 부위가 붉어지고, 목이 아프고 잇몸이 부으며, 뺨속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잠잘 때에 땀이 나며, 심지어 코피까지 나는 등 虛火證이 나타난다. 이 증후는 입안이 험고 잇몸이 부으며 火가 상승하여 관골 부위가 붉어지는 것으로 虛火가 발동한 신호로 본다. 이외에 金형인은 金이 燥氣를 품고 있는 관계로 六淫의 邪氣가 인체에 침입하면 燥氣로 바뀐다.

그 다음으로 水型人의 질병예보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 체형은 沈靜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밑부분이 커지는 삼각

21) 중의질병예측학, 78p

22) 진산형태진단, 108p

23) 중의질병예측학, 81p

형이거나 물방울의 형상으로서, 黑色, 面不平, 大頭, 廉頤,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背, 延延然하는 특성을 보인다²⁴⁾. 천성적으로 水氣가 농후하다. 水의 성질은 가라앉고 엉기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형의 사람은 맥이 가라앉고 얼굴은 검다. 키는 중간 정도로 몹시 여위고, 성격은 매우 내성적이며 생각이 많다.

그러나 쉽게 꺾이고 우울해지며 소심해진다. 반면 음흉하고 교활하며 간사하다. 水의 성질은 가라앉고 陰寒하다. 寒의 성질은 응고성과 수축성이다. 또한 水氣는 안으로 腎에 응한다. 그러므로 水型人은 陽虛陰寒病과 신계통의 질병, 예컨대 水腫 · 腰痛 · 關格 · 淋病 · 寒痛 · 痰證 · 불임증 · 寒痹 등에 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水性은 차고 서늘하여 陽氣를 쉬 상하게 한다. 따라서 陽氣가 부족하고 陰氣가 다소 성하여 腎陽이 虛하고 衰弱하며, 命門火가 부족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정신질환 방면에서는 우울성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 水型人은 陰이 盛하고 陽이 衰弱하며, 水氣가 많아 陽虛陰寒 및 신장계통의 병이 많이 걸린다.

水型人의 질병추세를 예측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 陰이 많고 陽이 적기 때문에 陽이 쉽게 손상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약하거나 오랜 병으로 腎陽을 상했다면 陽虛質로 쉽게 변한다.

즉 점차적으로 신체가 뚱뚱해지고 얼굴이 희어지며 혹은 검어지거나, 혀가 열은 흰색이거나 푸르게 되고, 舌體가 두터워지고 津이 많아지며, 이빨 흔적이 있고, 舌白, 몸과 손발이 차가워지며, 대변이 무르고 오줌은 맑고 많아지며, 脈沈細無力 등 陽虛證候가 나타난다. 그 중 몸과 손발이 차가운 것이 陽虛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증상이다. 그리고 혀바닥이 열은 흰색이거나 푸른 것, 舌體가 두텁고 크면서 여린 것은 또한 陽虛한 단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水型人이 만약 추워하거나 손발이 차갑고, 舌質이 두텁거나 부드러운 것은 이미 陽虛 병리적 단계로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陽虛 寒化나 양이 없어지는 등의 병리적 변화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밖에 水型人은 陽이 虛하고 陰이 勝하며, 水는 寒氣를 품고 있기 때문에 六淫이 몸에 들어오면 쉽게 寒化한다. 그리고 水型人은 先天의으로 腎陽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 오랜 투병 끝에 腎陽이 손상 받거나, 나이가 많고 신체가 쇠약하여 腎陽이 부족해지거나, 脾가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수곡이 運化되지 못하고 水濕이 속에 머물러 痰濕의 단계로 변화된다. 이때 얼굴과 눈이 힘없이 부어있고 얼굴이 어두운 누런색을 띠면서 윤기가 없고, 배가 붓고 대변이 무르고, 오심 구토증과 식욕 부진이 있으며, 가래가 많고 침을 흘리며, 대하가 멀겁고 찢득찢득하며, 추위를 타고 사지가 차가우며, 舌苔가 미끈미끈하며, 脈細濡 등의 痰濕證候가 나타난다. 이런 형은 수형질로부터 변화해 왔기 때문에 脾胃이 모두 虛한 변화가 있어, 목형질로부터 변화해 온 痰濕 병리질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형은 추위를 타고 사지가 차가우며, 뚜렷하게 浮腫이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형상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질병의 잠재적 경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단서를 예측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질병의 발전 추세에도 중

요한 예측을 하는 의의가 있다.

결 론

고령사회 진입과 소득 증대로 인하여 만성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건강증진과 관리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을 특히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韓醫界에서도 질병 예측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疾病 前兆 豫報는 예방적인 질병 관리 차원에서 질병 예측과 관련하여 큰 의의가 있다.

형태 진단에 따른 前兆 예보는 주로 超早期의 前兆에 속하며, 서로 다른 형상 유형은 질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특별한 친화성이 있으며, 형상 유형적으로 질병의 潛伏證으로부터 조기에 전조를 발견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內經에서 五行論에 根據하여 주로 顏面 形象을 관찰함으로써, 五臟六腑의 偏僻된 盛衰와 偏在된 氣運의 狀態에 따른 形象 類型의 특징을 파악하는 五型人의 형상 진단법은 질병의 잠재적 경향을 예측할 수 있고 질병의 단서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辨證施治와 관련하여 질병이 전환 발전하는 추세에도 예측이 가능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질병 예측적인 측면에서, 韓醫의 전통적인 形象 類型 診斷에 근거한 潛伏證 前兆의 파악과 관리는 앞으로 새롭게 개척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B070022).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진단생기능의학교실. 생기능의학. 서울, 군자출판사, p 355, 2008.
2.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옮김. 楊力著. 中醫疾病豫測學. 서울, 법민출판사, p 39, 2001.
3. 김경철. 전신형태 진단. 서울, 대진출판사, p 41, 2001.
4. 최승훈. 황제내경의 체질론(1). 동의병리학회지 7: 253, 1992.
5. 윤길영.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한얼문고, 18, 1973.
6.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 116, 1985.
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 232, 1985.
8. 王琦 主編. 臨床醫學從書(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438, 2003.
9. 匡調元. 人體體質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165, 2003.
10. 원광대학교한의대 제17기 졸업위 共譯. 國譯徐靈胎醫書. 서울, 대성출판사, p 42, 1994.
11. 김경철, 이정원, 김훈, 신순식, 이해웅, 이용태. 안면형태 유형 분류에 근거한 치미병 예방의학적신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1), 2008.
12. 김경철, 신순식.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24) 전신형태진단, 109p
25) 증의질병예측학, 85p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5), 2002.
13. 김경철, 신순식. 전신형태 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십계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1), 2004.
 14. 김경철, 이용태, 신순식. 전신형태진단과 변증시치의 연계를 위한 장남의 형태체질론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2), 2004.
 15. 김경철. 靈樞 陰陽二十五人篇 知人法에 나타난 認識과 思考方式의 形成要因에 대한 體質構成論的인 考察.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5), 2004.
 16. 김경철, 신순식, 류경호. 신체 형태 관찰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5), 2005.